

수완 신도시 난방비 30% 싸다

광주 최초 열병합발전소 월말 착공...업체 선정 등 사업 순조

2008년 입주 맞춰 전기·난방열·온수 공급

광주 최초의 열병합발전소가 이달 말부터 수완지구 현장에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11일 "열병합발전소를 세워 전기와 냉·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완·하남2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산업자원의 사업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지하매설물 공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대성그룹·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수완·하남 2지구 집단 에너지사업 투자양해각서'(MOU)를 교환했으나, 대성그룹이 내부 사정으로 참

여를 포기한 이후 지역난방공사와 따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허가 등 열병합발전소 건립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3사업자 선정도 마무리했다는 것.

광주시(1%)는 이에 따라 경남기업(51%), 지역난방공사(35%), 송촌건설(13%)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기로 하고 이달 말 MOU 체결과 동시에 전선·열배관 등 지하 매설물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입주가 시작되는 2008년 말까지 열병합발전소와 배관망 등을 완공해 단지내에 필요한 전기·난방열·온수 등을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는 1천800억원이 투입돼 시간당 70만kW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와 200만kW급(시간당) 열전을 보일러, 60만kW 규모의 축열조(열 저장시설) 등이 들어선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청정연

료인 천연도시가스(LNG)를 사용해 연간 351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연간 4만6천t이상 줄일 계획이다.

입주민들도 겨울철 난방비에서만 30% 이상을 절감, 연간 3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신설 등으로 110명의 직접 고용창출과 관련 기업 유치,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확충 등도 기대된다.

2003년 착공한 수완(140만평)·하남2(30만평)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2008년 말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초기 제3사업자가 업체 내부 사정으로 참여를 포기했지만, 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통해 참여 기업을 이미 새로 모집한 데 이어, 산자부 사업허가를 받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2008년 수완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확실하게 가동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디젤차 성능 가솔린차 '추월'

동일 차종 주행 테스트 '우수'

동일한 차종의 디젤차와 가솔린차의 주행성능을 비교한 결과 디젤차가 더 '우수'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하니웰코리아의 후원으로 지난 10일 태백 준용 서킷에서 개최된 제1회 한국오토페스타(HASF)에서는 프라이드 1천500cc급 프라이드 디젤 및 가솔린 차량, 2천cc급 소나타 디젤 및 가솔린 차량의 주행성능 테스트가 이뤄졌다.

하니웰코리아에 따르면 직선거리를 달리는 350m(비공인) 드래그레이스에서 프라이드 디젤이 14.6초를 기록, 15.3초에 그친 프라이드 가솔린을 제쳤으며, 소나타의 경우에도 디젤은 15.1초인데 비해 가솔린은 0.3초 늦은 15.4초를 기록했다.

하니웰코리아 관계자는 "프라이드가 소나타 보다 기속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라이드의 경우 프로급 선수들이 차를 몰았고 소나타의 경우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테스트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4km 서킷 레이스에서 프라이드 디젤은 최고 기속이 1분20초였으나 프라이드 가솔린은 1분28초를, 소나타 디젤은 1분20초, 소나타 가솔린은 1분22초를 각각 기록, 서킷 레이스에서도 디젤차가 가솔린차를 앞섰다고 하니웰코리아는 밝혔다.

하니웰코리아측은 "디젤차는 커먼레일 방식으로 연료의 미립화가 가능하고 고압에 의해 피스톤 행정거리가 커 큰 폭발력을 보이며, 고압축 고밀도의 공기를 흡입하는 VGT 터보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 저속 구간에서 고속구간에 이르기까지 고른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령화 사회는 증시 호황의 기회"

증권맨 책자 발간 화제

증권맨이 인구 구성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키움증권 홍준욱 투자전략팀장. 홍 팀장은 11일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감소해 약소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인구의 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원앤원 북스 펄버)'라는 책을 통해 고령화사회가 주식투자자로 한 톨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인들의 경우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결혼과 자녀 출산 등으로 돈을 모으기보다 쓸 일이 많아 가계부가 빠듯하지만 40대로 접어들면 적자생활을 탈피해 늘어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다 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소비의 주도세력인 20~3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저물기, 저금리 시대가 정착되는 한편으로 40~50대의 풍부한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증시가 장기 호황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전셋값 상승률 역전 소형일수록 더 높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소형평형형일수록 전셋값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휴가철이 끝날 무렵인 8월 둘째 주부터 지난 8일까지의 서울 시내 전셋값 상승률을 평형대별로 분석한 결과 20평 이하가 0.48%나 올라 가장 높았다.

20평대(21평-30평)의 상승률은 0.44%로 두번째였으며 30평대(31평-40평)가 0.36%로 뒤를 이었다.

40평대(41평-50평)와 51평이상은 각각 0.19%씩 오른 것으로 조사돼 20평 이하 20평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셋값도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대형

일수록 상승률이 높은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실제로 올해 초와 대비한 전셋값 상승률은 20평이하 4.90%, 20평대 5.31%, 30평대 6.69%, 40평대 7.03%, 51평이상 6.99%를 각각 기록했다. 또 8·31 대책이 나온 뒤의 전셋값 상승률을 봐도 20평 이하가 8.62%로 가장 낮고 20평대 8.70%, 30평대 11.33%, 40평대 12.07%, 51평이상 12.96%로 아파트가 넓을수록 높았다.

최근 1개월 새 전셋값 상승률이 소형평형일수록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 아파트 구입시기를 미루면서 중소형 평형 전세를 중간 과정으로 삼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가애플' 11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매장을 찾은 한 손님이 수류탄 모양의 '수가애플'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다. '수가애플'은 회녹색의 열대과일로 당도가 높고 부채꼴 머리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석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합뉴스

CD금리 하락세 지속

주택 담보대출에도 영향 미칠 듯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에급증세(CD) 금리(수익률)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 담보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CD 금리(91일물)는 연 4.65%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 최근 고점이었던 지난달 10일 대비 0.06%포인트 떨어졌다.

CD 금리는 지난달 10일 콜금리 인상 직후 4.71%로 0.07%포인트 급등한 뒤 다음날 곧바로 4.70%로 0.01%포인트 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3일과 29일, 지난 4일 세 차례 걸쳐 0.0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4.67%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8월 22일 3.48%로 바닥을 찍은 뒤 1년간 상승했던 CD금리가 지난달부터 조금씩 낮아지다가 지난 7일 한국은행이 콜금리 동결한 다음날 0.02%포

인트를 더 낮춘 것이다.

콜금리(4.50%)와의 금리차도 0.15%포인트로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콜금리 인상행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당분간 콜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만큼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금시장 수급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둔화와 경기 위축으로 대출처가 마땅치 않은 시중은행들이 CD 발행물량(공급)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반면 매입수요는 어느 정도 살아있어 CD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하락했으며,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수출 신기록 쏟아질 듯

첫 3천억 달러 돌파...석유·반도체·조선 부문 사상 최대

산업자원부 전망

올해 수출 신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질 전망이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출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부문의 수출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체 수출은 2천90억9천800만달러(잠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 늘어나 사상 첫 3천억달러 고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수출 2천억달러 돌파시점도 지난해 9월 23일보다 한달 정도 빠른 8월 24일이어서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이 3천억달러를 넘은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영국·벨기에·이탈리아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또 파업에 따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동차업체의 수출확대 노력이 본격화되고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 연간 수출목표인 3천180억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체 수출 증가세에 기여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석유제품 수출은 123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보다 무려 50.1% 늘어나 현재의 증가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전체로는 185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지난해의 153억6천600만달러를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과 반도체 수출은 사상 처음 200억달러와 300억달러 고지를 각각 밟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조선 수출은 135억4천8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3.1% 늘어나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 203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214억6천8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3% 증가했고 올해 전체로는 322억달러 정도의 수출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내년 세계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진입

모건스탠리증권은 2007년 세계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앤디 시에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1일 보고서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5%에서 내년 4%로 후퇴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3%에서 4%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앤디 시에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물가를 끌어 올린 요인으로 아시아의 저가 상승,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함께 임금 압력을 들었다. 인플레이션은 2002년의 1%를 저점으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연합뉴스

타르 0.5mg 담배 'THE ONE 0.5' 출시

국내 최초로 타르 함량 1mg의 벽을 깬 저타르 담배가 출시된다.

KT&G는 지난 2003년 출시한 타르 1mg 제품인 'THE ONE(더 원)'의 패밀리 브랜드로, 개비당 타르와 니코틴 함량이 각각 0.5mg과 0.05mg에 불과한 'THE ONE 0.5(더 원 영점오)'를 13일 출시한다. 시판가는 갑담 2천500원.

'더 원 0.5'는 84mm 레귤러형 쉘렌으로 옥타고널(8각) 형태의 외형에 대나무활성숯필터를 채택했다. 제품 디자인 역시 최저타르 제품의 이미지에 맞게 최대한 단순화, 'THE ONE 0.5' 로고 밑에 '절대반지'(THE ONE Ring)라고 명명된 옐로우 색의 동근 반지모양 상징을 새겨 넣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두산 '처음처럼' 대박내고도 '찝찝'

마케팅비 과다 지출

소주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7월에 전국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한 '처음처럼'이 막대한 마케팅비 지출로 두산그룹의 주류사업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주류 BG는 지난해 상반기에 매출 1천350억원에 영업이익이 170억원을 올렸고, 처음처럼이 출시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월 점유율이 5.2%에서 10.1%까지 뛰면서 상반기 이익은 2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처음처럼 마케팅을 위한 비용 증대로 인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의 경우

마케팅 비용이 73억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처럼 판촉 때문에 무려 234억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또 출고가를 병(360ml/병)당 730원으로 경쟁사들의 기존 제품보다 낮게 책정한 것도 판매량 신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결국 수익성 측면에서는 출혈경쟁으로 인해 약화를 초래한 셈이 됐다.

진로도 처음처럼에 맞서 판촉비를 늘려 영업이익이 줄기는 마찬가지다.

진로는 작년 상반기에 1천13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처럼에 맞서 작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15억원을 판촉에 쏟아부으면서 영업이익이 36% 줄어든 727억원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시류온코리아	무인경비 아간출동대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12	062-368-8258
☎화인코리아	정규직 분야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1-330-4520
스텔스*	냉장고개발실 관리직 채용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13	062-351-6050
디자인수	정규직 현장관리 인테리얼 기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13	062-610-5585
비이신협	출납 및 사무업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13	062-972-1222
서울컴사*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09/13	062-369-0790
신원건설*	토목기사모집-택지현장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09/15	02-2242-0180
☎현성테크노	생산직 시일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5	062-942-6251
도성건설*	경리사무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9/15	062-681-7580
☎빅마트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무 경력사원 채용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9/16	062-650-2205
신성하이텍*	신성하이텍 생산관리대리&품질관리과정 경력사원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9/17	062-952-1441
(재)호남직업전문학교	기계/통신/정보처리 분야 계약직 교사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7	062-605-8080
한국게임사관학교	제2기 정규과정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62-350-2446
☎경진산업	자동차 부품 조립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18	062-511-3078

(광주직업코리아 512-6210 제공)